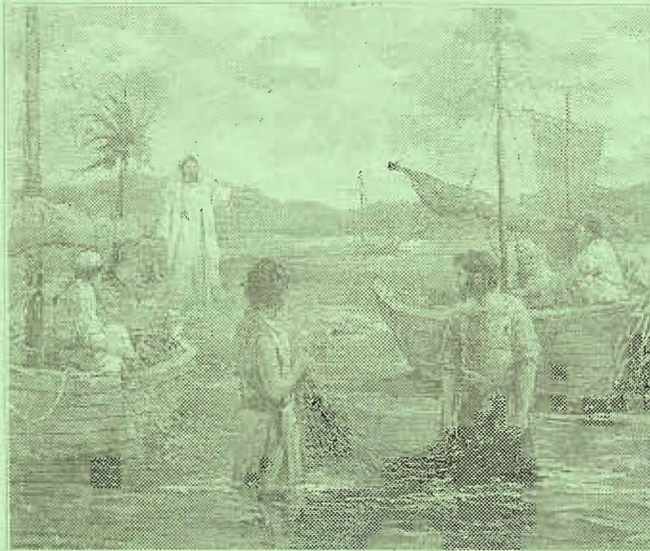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주일
제34권 9호(가해) 2014.1.26

[묵상]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곧바로’,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곧바로’, ‘버리고’

‘따르라’는 요구에 ‘버리고’ 따라나섰듯이,
부르심과 추종에는
신념에 찬 결단과 실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버림’을 실천한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소명을 나눠 갖게 됩니다.

회개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끝이야"
하는 식의 태도로는 평생 우리들의 잘못은 고쳐지기 힘들다.
죄를 피한다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것,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투신이 필요하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이기 요셉 & 김순희 헬레나, 변석환, 권순봉 요안나, 김인영 베드로
	(생)이용운, 김낙기 바오로, 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배론 청년회 멤버들
주 일 낮 미사	(연)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용 요한, 임재화 안나, 지용애,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박기진 이나시오, 이용식 베드로, 김인숙 마리아,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김순제 암브로지아, 하제도, 최근석 마리아,
	(생)이정훈 안셀모 & 오혜운 도미니카 & 이유진 대견안드 레아 & 이윤미 율리아, 이광웅 요셉, 이효희 마리아, 김승환 헨리,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겐마 & 정엘리스 클라라, 백삼위 ME가정들, 남가주 MB가정들, 식순영 아네스, 진은란 아네스 가정, 이진향 아네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8,23-9,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 님 은 나 의 빛, 나 의 구 원 이 시 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시워하라?○
○주님께 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리러보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10-13,17

복 음2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 음 마태오(Matthew) 4,12-23<또는 4,12-17>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기뻐하며 왕께	232	178
봉헌	목마른 사슴	261	269
성체	주께 가오니	289	291
파견	199	187	234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1)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의 반(反)마리아주의

이른바 '보수적인 정통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의 신적 모성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미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네 가지 교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톨릭 교회는 결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며, 그리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리는 올바른 신앙이며 정당한 신학적 이유와 근거가 있다.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가.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이는 1947년부터 상주 황테레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한 내용)
탈혼 상태에서 천주 성삼과 성모님과 천사들과 천당, 연옥, 지옥을 보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과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여러 책을 통하여 성모 신심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주장은 상주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에 관하여 교회는 일찍이 대구교구장 서정길 주교의 교령으로 그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서정길 주교는 교회법 제1261조 1항에 의거하여 5명의 조사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1957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그의 묵시, 발현, 계시, 예언 등의 모든 사건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 당연한 귀결로 그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성 지도들을 금지하였다.

이에 관한 기사를 당시『가톨릭신문』(1957년 3월 14일)이 실은 바 있다. 이 신문기사는 이미 1954년 3월15일자로 최덕홍 주교와 서울교구 노기남 주교가 금지를 명한 바와 1955년 2월27일자로 당시 대구교구장 서리 서 베르나르도 부주교의 명의로 재차 엄중한 경고의 단을 내린 바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안동교구가 대구대교구에서 분리되자(1969년) 안동교구장 두봉주교도 그러한 활동을 금하였다.

상주 황 테레사 사건에 관한 당시 판정 선언과 금지 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

차별미를 하는 이유

신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다가 '차별미'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간혹 차별미를 하는 분이 있는데 멀미란 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차별미를 하는 분들은 흔히 버스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될까요? 또 멀미가 심한 사람도 직접 차를 운전할 때는 전혀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버스 앞자리에 앉거나 직접 운전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달리는 도로가 왼쪽으로 휘어졌는지 혹은 오른쪽으로 쏠릴지 하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멀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멀미란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갈지, 그래서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새해, 이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불안감 내지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울렁증, 멀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해 희망'이란 게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뭔가 낫겠지. 분명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야. 암, 꼭 그래야지.'라는 희망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작년과 다르기 위해서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방식이 작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염두를 못 냈던 일도 용기 내서 해봐야 하고, 끊을 게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버릴 게 있다면 버려야 하고, 떠날 일이 있다면 과감히 자리를 털고 떠나야 합니다. 이런 과감하고 새로운 결심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오늘은 '해의 원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열심히 덕분에, 짧은 기간에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대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종교가 일러줘야 할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 공동체적 행복을 일깨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은 마음에 담을 만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유리잔이 가득 차면 흘러넘쳐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 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물이 가득 차면 아래로 흘러넘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럼에도 잘못된 편법이나 탐욕 때문에 막혀버린 자연의 순리... 마음에 되새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어쩌면

치아가 돌을 즈음 아가들은 딱치는 대로 물고 칭얼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처럼 새하얀 이가 보드라운 잇몸을 뚫고 올라온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치아 하나 돌는 데도 그렇더군요.

유독 되는 일 없이 하는 일마다 꼬인다고 서둘러 말아야지, 내 안 어디에서도 희고 투명하고 반짝이는 이가 이제 막 돋으려는 건지도 모르니.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치스코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데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갑오년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설날 합동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월31일(금)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미사에물 봉헌 : 사무실

◆ 2013년 본당 살림살이 내역 주보 6면에 게재

- 지난 한해동안 교우들께서 정성스럽게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등 각종 봉헌금의 사용내역이 오늘자(1월26일) 주보 6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불경기속에 알뜰살림을 하느라 애쓰신 본당 사목회와 실무담당분과에 감사드립니다.

◆ 2월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 1일 오전 8시30분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 다음주일(2월2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30일(목)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봉헌미사 : 2일(주일) 낮 11시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요셉회 설맞이 잔치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 요셉회가 마련한 설날맞이 잔치가 지난 주일 낮 미사후 교우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조출하면서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 교우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 요셉회 일동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본당 성소 후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소자 양성 및 예비 성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일시 : 매월 첫목요일에 미사와 성시간 후에 바치는 합동 목주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매일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칩.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소후원회 회장 ☎(310)780-0369

◆ 2014년 주일학교 학생 복사단 모집

- 대상 : 첫영성체를 한 주일학교 등록학생이면서 부모님이 열심한 신자인 학생
- 첫모임 : 2월22일(토) 오후 2시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복사담당 교사 ☎(310)744-5878
- 입단식 : 6개월 교육기간이 끝나며 8월중 낮미사 (오전11시)중 에 입단식 거행(날짜 추후 통보)

◆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미사에 봉사하실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문의 : 오마우라 수녀님

◆ '기도의 언덕'을 이용합니다.

-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향을 적어서 성체 조배실에 비치된 '기도의 언덕'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 ☎(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26일(주일) : 토런스 남1반(콩나물북어국 \$3)
* 주일학교(7학년 치킨케사디아)
- 2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주일학교(5학년 카레라이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관기	김상규	김 은	김재영	김정순
	김찬구	김효진	박선희	박음전	박주현	배재일
	배태임	서성용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윤석구
	이경수	이민상	이우성	이현주	이효세	임 순
	정남형	정병훈	정정현	지경수	차인수	최기호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하정화		
합계 : \$3,060						
주일미사 헌금 : \$2,923						

성전헌금	금영도	김관기	김찬구	김효진	박선희	박음전
	박주현	서성용	신순철	안민수	안태갑	이경수
	이민상	이우성	이일길	이현주	이효세	임 순
	정남형	정정현	지경수	차인수	최기호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하정화			
합계 : \$1,970						
달력광고후원 : \$9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2학년 첫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일시 : 2월2일(주일) 수업시간중(오전 10시30분~낮12시)
- 내용 : 수업내용, 준비사항, 스케줄 관련 등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주임 ☎(310)780-8895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디스카운트 혜택 : 2월9일까지 접수하면 10% 절약 \$180
- 신청마감 : 2월23일까지 선착순 30명제한(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백삼위 한국학교 1학기말 시험만점자...축하합니다!

- 개나리반 : 권순, 이유미 ● 해바라기반 : 이가윤, 이수인 이아라, 장은서 ● 장미반 : 김지인, 박세민, 박인혜, 성민지, 윤희수 ● 코스모스반 : 박채원 ● 민들레반 : 안국진, 박소은, 박정은, 이다솜, 이주은, 최부경 ● 수선화반 : 전우용, 칼란타 수정
- 진달래반 : 장준서

◆ SAT반 학생모집

- 대상 :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한국학교 2학기시작 : 오늘주일(2일) 낮 12시30분
* 설날행사 : 세배하기, 가래떡 나누기
- 한국학교를 위해 도내이전해주신분(정충로 안토니오 님)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소식

◆ 전례특강 “일상속에서의 미사 전례의 의미”

- 일시 : 2월2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강사 : 조학균 신부(대전 가톨릭대학 전례학교수)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2014년 2월5일(수)~9일(주일)
- 지도 : 조학균 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y(650 Benet Hill Rd, Oceanside)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 신청마감 : 오늘주일(26일) 남녀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율리아나 920-5253 1/11(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213-276-3168 1/11(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0(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1/17(금) 오후 7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최지영 카타리나 848-0590 1/11(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6(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기남 야고보 968-8280 1/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남 마르시아 634-6923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13(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999-1448 1/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11(토) 온천관광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1/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나 482-9108	조혜란 엘리사벳 602-402-8518 1/17(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지영 프란치스코 818-1799 1/10(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오현희 골롬바 617-3568 1/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2013년 백삼위 본당 공동체의 살림살이

교무금 계좌

▶ 수입 : \$ 441,191.47

수입 내역 교무금, 미사헌금, 특별목적 헌금, 기부금
기타 - 주보·달력 광고 후원, 성전 대여, &..

▶ 지출 : \$ 413,014.00 수입의 94 %

지출 내역 사목비 27 %, 관리운영비 41 %, 인건비 26 %

▶ 잔액 : \$ 28,177.47 수입의 6 %

성전헌금 계좌

▶ 수입 : \$ 147,977.44

수입 내역 성전헌금, 감사헌금, 재활용(Recycling), 기타

▶ 지출 : \$ 138,492.14 수입의 94 %

지출 내역 : 성전 Loan Payment 12개월
(원금상환 \$ 38,058.82 · 이자 \$75,035.86)

김중돈 스테파노 기금 사용
(성전 음향설비 · 인테리어 \$25,397.46)

▶ 잔액 : \$ 9,485.30 수입의 6 %

※성전 건축비 융자 빚(Loan Bal.) : \$1,536,017.82 - 2013년 12월말 현재-
(성전 Loan 재융자 2013년 6월 : 월서 은행에서 → 태평양 은행으로 이전)

2013년 한 해 동안 봉헌하여 주신 공동체 가족 모두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